

5

반일을 통한 또 다른 일본 되기

특집: 한국인의 일본인식 100년

— 이승만 대통령의 대일인식

박태균



■ (위)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는 이승만

■ (오른쪽 페이지 위 왼쪽부터) 맥아더와 이승만, 1959년 제2차 북송선의 모습, 관동군 헌병 출신으로 해방 후 이승만의 최측근이었던 김창룡과 이승만



1. 기존 연구

한국 현대사에서 한일관계는 단지 양국 사이의 관계로서만 인식될 수는 없다. 1945년 이전의 관계와는 달리 1945년 38선 이남의 한국과 일본에는 미군정이 수립되었고, 한국전쟁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거치면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안보동맹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는 유럽과는 달리 1대 1동맹 관계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은 안보동맹 조약 하에서 지난 60년 동안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과 일본의 군사기지를 유지했다.

미국의 한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수성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안보적 측면에서 유지되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동맹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¹⁾ 물론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우호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이 관계가 동맹관계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이 각기 미국과 맺고 있는 동맹관계로 인해 양국 간의 관계는 미국의 정책 및 한일 및 미일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 **지은이** |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 대학 옌칭 연구소 방문 연구원을 지냈으며, KBS '인물현대사',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의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있다. 지은책으로 『현대사를 베고 쓰러진 거인들』, 『조봉암 연구』, 『한국현대사 강의』, 『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한국전쟁』 등이 있다.

1) 빅터 차는 이러한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유사동맹(quasi-alliance)으로 개념화하기도 했다. 빅터 D. 차, 『적대적 제휴—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김일영·문순보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4.

1950년대 역시 예외라고 할 수 없다. 아직 한일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했던 시기였지만, 한국과 일본이 공히 미군정 시기를 거쳤고, 미군이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안보조약을 맺었던 시기였다. 게다가 미국의 대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가 한일관계의 정상화였으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내부적인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²⁾ 따라서 1950년대의 한일관계는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한국과 일본이 각기 상대방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주요한 아시아정책의 하나로 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관계 정상화는 고사하고, 다양한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었다. 미국의 중재에 의해 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시작되었지만, 이승만 라인과 일본 어선의 나포, 구보타 발언, 원조물자 구매지, 복송 등의 문제로 인해 회담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³⁾ 이는 기본적으로 1945년 이전의 불행한 관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 차이 — 한국 사회의 일제 강점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냉전체제 하에서 전범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한 일본 내 보수적 정치인들의 일본 식민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양국의 정치인, 관료들의 인식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극단적인 반일의식은 1950년대를 통해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을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승만 대통령의 반일의식을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단순히 강한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병준은 일제 강점기 이승만의 대일인식이 미일관계에 따라 변화를 보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박진희는 이승만의 태평양 동맹에 대한 분석을 통해

2) 李鍾元, 「米韓關係における介入の原型—「エヴァーレディ計画」再考(1)~(2)」, 『法学』 58권 1호(1994년 4월), 59권 1호(1995년 4월); 「五十年代東アジア冷戦ノ変容ト米韓關係」, 『法学』 59호(1995); 「韓日国交正常化の成立とアメリカ—一九六〇~六五年」, 近代日本研究会, 『近代日本研究·十六·戦後外交の形成』, 山川出版社, 1994; Tae Gyun Park, "Changes in US Policy Toward South Korea in the Early 1960s", *Korean Studies*, vol. 23, 1999.

3) 李鍾元, 『東アジア冷戦と韓米日關係』, 東京大学出版会, 1996 참조.

1948년에서 1950년 사이 그의 대일인식을 민족주의보다는 실용주의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⁴⁾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이승만의 ‘반일’이 갖고 있는 이중성을 밝히고 있지만, 그의 대일인식에서 나타나는 ‘실용’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연구의 시기가 한국전쟁 이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1950년대 이승만의 대일인식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적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옥희의 ‘역할 모델’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참고로 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한국의 ‘역할 인식’이 그의 대일관에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다.⁵⁾

2. 이승만의 대일인식의 배경

1) 미국의 대일본정책에 대한 비판

1953년의 정전협정은 1950년대 한미 간 갈등의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한미 간의 갈등이 기본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둘러싼 갈등으로 표출되었다.⁶⁾ 즉, 정전협정을 반대하고, 미국으로부터 안보공약을 얻어내기 위한 이승만 대통령의 전술이었다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러한 전술이 성공적이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상비계획’(Ever-ready Plan)으로 명명되는 이승만 대통령 제거계획이 미국에 의해 입안될 정도로 당시의 갈등은 심각한 것이었다.

그런데 1954년의 신문을 보면 미국에 대해 ‘경고’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

4)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99~100쪽; 박진희, 「이승만의 대일인식과 태평양 동맹 구상」, 『역사비평』 76호, 2006. 이승만의 태평양 동맹과 관련해서는 노기영의 선구적 연구『이승만정권의 태평양동맹 추진과 지역안보 구상』, 『지역과 역사』 11호, 1999)가 있으며, 본고에서는 이승만의 역할 모델과 관련한 논의에서 노기영의 연구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5) 신옥희, 「이승만의 역할인식과 1950년대 후반의 한미관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6집 1호, 2004.

6) 홍석률, 「한국전쟁 직후 미국의 이승만 제거계획」, 『역사비평』 1994 가을호; 김일영, 『건국과 부국』, 생각의 나무, 2005, 148~152쪽.

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승만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은 정전협정과 같이 밖으로 표출된 한미 간의 갈등이 아니었다. 오히려 담화의 내용은 미국의 대일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20일 이대통령은 파괴된 우리국토의 재건은 친일하는 미국의 □□□ □□가들의 계획으로 실패에 돌아가고 말았으나 우리는 자발적 결심과 노력으로 재건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강조하고 친일미국 관리들의 종전과 같은 □□가 계속된다면 차라리 우리 원조도 그만두고 모두 일본에다 주라고 하기로 걱정했다고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의 과오를 지적하는 요지의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전쟁에 전적으로 파괴당한 우리나라의 재건은 우리민족의 자발적 결심과 노력이 아니고선 될 수 없는 것을 나는 □□□ 각오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서울로 환도하여 올 적에 우리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재건설을 토의하며 ‘벤-프리트’ 장군과 협의가 있어서 수도를 먼저 대대적으로 재건할 것을 계획하고 공석에서 설명하였다.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다 허언이 되고 말았으니 허언이 되고 만 것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로 인해서 민중이 자기들이 할 것도 하지 못하고 이 계획 진행만 기다리다가 세월만 허비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벤-프리트’ 장군이 공연한 헛소리로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해 나갈 계획은 다 있어서 시작된 것인데 친일하는 미국 사람들이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서 한국이 받을 원조금을 □□□□□□ 일본에 떨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일본보다 좀더 낮게 하려는 일이 있으면 일본인이 시기하여 막는 까닭으로 이를 따라 친일하는 미국인들이 막아 온 것인데 최고기관에서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 그 사람들끼리만 협의해서 나가는 까닭으로 모든 정책의 크고 적은 것을 협의할 적에 우리나라의 친구되는 사람들의 세력을 늘릴 때에는 우리에게 다하여 주려고 만들어 둔 것도 중지되고 마는 까닭으로 ‘벤-프리트’ 장군이 계획한 것이 실패되고 말았다. 그분이 실패한 것은 친일하

는 사람들의 성공인 까닭으로 우리나라에 응당 올 돈이 다 일본으로 가게 된 것이다. (중략)

지난 7~8년 동안에 미국이 한국경제부흥을 위하여 많은 금전을 허비하였는데 우리 경제부흥에 수요될 만한 것은 하나도 해놓은 것이 없다. 그리고도 지금 미국인들이 우리와 시비하는 것은 일본의 생산물품을 우리가 ‘보이코트’한다는 까닭으로 우리를 □□해서 우리에게 주는 원조는 할 수 있는 대로 일본인에게 주기를 노력해 온 까닭으로 미국인들이 원조 재정을 자기들끼리 자유로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일 필요한 비료, 시멘트, 석탄 등의 생산과 전기발전 시설 그리고 어업발전과 같은 사업은 하나도 착수하지 않고 또 착수도 못하게 하였으며 오직 미국인들이 외국의 산물을 사다가 우리들이 입고 쓰는 물건을 일본 물건화한 것이다. 내년에 비료만 4천만 달러씩 들여서 일본에서 사들여 오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쓰는 1, 2년 경비만 얻으면 한 두 해는 비료 없이 지나도 그 돈으로 비료공장을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외국에서 비료를 사들이지 않고도 살□하는 것을 미국인들이 멋대로 막아 오며 우리들에게 권유하는 말은 비료나 시멘트를 만들면은 경비가 더 많이 든다고 하고 일본에서 사오면 편하고 싸다고 핑계하며 막아 온 것이다.⁷⁾(이하 인용문에서 일부 용어를 현재의 맞춤법에 맞도록 수정하였음. 인용문 중 □로 표기된 부분은 해독불가)

다소 긴 인용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이 담화 속에서 이승만의 대일인식의 전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만의 주장은 미국이 주어야 할 곳에 는 주지 않고, 주지 않을 곳에 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반공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에 재건을 위한 원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에 그러한 원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 원조를 위한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원조가 일본의 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7) 「미 정책은 일본에 치중」, 『조선일보』, 1954년 9월 22일자.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담화는 「대일편중책은 부당,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 경고 담화」, 『조선일보』, 1954년 4월 30일자.

것을 위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다.⁸⁾ 일본 물품 구입에 대한 그의 극단적인 부정적 자세는 위의 인용문에서 '1년 간 비료를 쓰지 않더라도 구매대금으로 비료공장을 짓겠다'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승만의 이러한 생각은 당시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대해 반발하는 것을 의미했다. 미국의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대아시아정책은 이미 한국전쟁 이전인 1949년 '역코스' 정책을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물론 일본 중심의 정책이 한국전쟁 이전에는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이는 국가안보회의 '문서 61'의 입안과 결정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미 행정부 내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재건 원조에 대해 반대하는 관리들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1949년에서 1950년 사이 한국에 대한 ECA 원조가 실시되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⁹⁾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일본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승만은 이에 대해 반발했다. 따라서 이 시기 그는 일본을 제외하고 태평양 동맹을 결성해야 한다는 담화도 수 차례에 걸쳐 발표하였고, 그러한 담화 속에도 미국의 대일정책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었다.¹⁰⁾

이렇게 미국의 일본에 대한 경제재건 정책에 초점을 맞춘 이승만의 비판은 '한미합의의사록' 체결을 위한 1954년 7월 말의 방미 과정을 통해 잘 드러났다.

8) 이 담화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미국의 대일정책과 대아시아정책이 잘못된 이유의 하나가 미국 내에 있는 소위 '친일파'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이승만 특유의 외교전략을 잘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그는 식민지 시기를 통해 미국 내에서 로비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의 귀국과정, 1946년 말 방미를 통해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하도록 로비하는 과정 등을 통해 인적 관계의 힘을 실감한 바 있었다. 따라서 그는 일본에 호의적인 미국의 관료들을 비판함으로써 미국의 대일정책 및 대한정책의 기초를 바꿀 수 있다고 보았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미국 내에서의 네트워크와 로비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그의 재임 기간 중 주미대사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그의 재임기간 중 주미대사였던 장면과 양유찬이 외교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일례로 이승만은 국무부가 기본적으로 친일그룹에 장악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새로 임명된 파슨스 차관보 역시 일본공사를 지냈다는 점에서 일본의 영향을 받을 것에 대해 이승만은 우려하고 있었다. 신옥희, 「이승만의 역할인식과 1950년대 후반의 한미관계」, 54쪽.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9) 박태균, 「1948~1950년 미국의 대한경제부흥정책」, 『역사와 현실』, 28, 1998.

10) 「태평양동맹 결성이 시급, 이대통령 미의 대일정책에 경고」, 『조선일보』 1954년 2월 1일자; 「아주 결속에의 암, 이승만 대통령, 미국의 대일정책 재경고」, 『조선일보』 1954년 9월 1일자.

미국은 7월 30일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합의의사록’ 초안을 한국측에 보냈다. 그런데 이승만은 그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다. 특히 그가 반발한 부분은 일본에서 원조 물품을 구입한다는 것과 한일협정의 문제였다. 이승만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¹¹⁾

미국의 대일정책에 대한 이승만의 비판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56년에는 미국이 일본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¹²⁾ 그리고 1950년대 말에 가면 재일 조선인의 복송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의 갈등이 전개되었을 때 일본의 ‘완고한 자세’가 미국의 ‘도덕적 후원’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¹³⁾ 이러한 이승만의 생각은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 대일인식 및 대일관계에 대한 인식의 기저에 항상 미국의 대일정책에 대한 그의 비판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2) 분단 상황과 북한과의 경쟁 의식

① 이승만 라인과 그에 따른 일본 선원 및 어부들의 나포, ② 구보타 발언과 청구권 문제, ③ 미국의 대한원조 물품의 일본에서의 구매 문제, ④ 복송문제¹⁴⁾ 등은 1950년대 한일관계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이다. 이 중 ①, ②, ③은 모두 미국과 관련된 이슈들이다. ①의 경우 1945년 일본 패망 직후 GHQ에 의해 선

11) 노기영, 「이승만정권의 태평양동맹 추진과지역안보 구상」, 216쪽. 노기영은 결과적으로 한국측의 저항으로 인해 합의의사록의 내용 속에서 ‘조달지역으로 일본을 지칭하는 단어가 사라졌으며, 한일관계 강화에 대한 부분도 삭제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미국의 원조물자 조달에 특정 나라를 정책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설치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의사록의 수정이 한국측의 저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군의 작전권 문제 및 규모 문제라든가 다른 이견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인지는 좀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12) 공보실, 「대통령 이승만박사 담화집」 제2집, 1956, 22쪽(신육회, 「이승만의 역할인식과 1950년대 후반의 한미관계」, 46쪽에서 재인용).

13) “미국의 입장은 일본인들이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놔두는 것이며, 나는 미국으로부터 얻는 도덕적 후원이 일본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완고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점을 걱정한다.” 「이승만이 한표욱에게 보낸 서한」, 1959. 9. 3. 외무부 문서, 릴 번호 O-0014.773.1 US 1959 한(신육회, 같은 글, 54쪽에서 재인용).

14) 아직은 좀더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필자는 개인적으로 ‘복송’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복송’이라는 용어의 주체는 일본정부가 되고, 재일조선인들이 피동적인 입장이 된다. 일본정부가 보내는 정책을 실시했던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재일조선인들이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갔던 사실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포된 맥아더 라인, 그리고 맥아더 해임 이후 클라크 라인과 관련되어 있다. ②의 경우 미군정이 수립된 직후 군정법령 33호에 의해 식민지 시기 조선 내 일본의 공공재산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재산까지도 모두 압수했던 상황에 기인한다.¹⁵⁾ 일본이 패전국이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까지 몰수한 것은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과 대한민국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이 재산을 이양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미국 정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¹⁶⁾ ③은 미국의 아시아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안들이 미국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 가운데, 오직 ④의 북송문제만이 미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제였다. 재일 조선인의 북송은 인도적 차원의 정책을 추진했던 국제적십자사의 입장, 좌파적 성향이 강했던 재일 조선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불안 세력을 제거하고 한국전쟁 이후까지도 북한 지역에 남아 있었던 일본인들의 송환을 원했던 일본정부의 입장, 중국군의 철수 이후 노동력의 보충이 절실히 필요했던 북한정부의 입장, 그리고 강력한 반공이데올로기의 칼날의 휘두르고 있었던 한국정부와 외국 국적 사람들의 권리가 점차 축소되고 있었던 일본 사회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재일 조선인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¹⁷⁾ 북송문제가 미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사실은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후에 입장을 바꾸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렇다면 이승만이 이 문제에 대해 집착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북송문제가 이승만의 대일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보자. 북송이 이루

15) 이원덕,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 출판부, 1996, 84~89쪽; 박태균, 『한일회담 시기 청구권 문제의 기원과 미국의 역할』, 『한국사연구』 131호, 2005, 37~47쪽.

16) 이승만은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한국측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일회담에 관한 건: (AA0000459), 대통령기록관 소장 문서. 일본인의 사유재산 압류를 결정한 것은 미군정의 법령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기대였다. 그러나 미국은 1950년대 말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회답을 기피한 채 한국과 일본이 협의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17) 테사 모리스 스즈키, 『북한행 엑서더스』, 한철호 옮김, 책과함께, 2008 참조.

어졌던 시기 일본의 수상은 기시 노부스케였다. 그는 만주국의 고위 관리를 지냈던 A급 전범이었지만, 사면을 통해 정치권에 복귀할 수 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어낸 지 10년도 되지 않아 수상에 취임하였다. 따라서 그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인식은 부정적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이 구도(기시의 동남아 계획—인용자)는 불행히도 수년 전의 대동아공영권 구상을 상기시킨다. …… 사십년 전 우리는 미국에게 일본에 대해 경고하였지만, 그 경고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미국은 진주만을 공격당했다. 오늘날 우리와 기타 여러 아시아인들은 동일한 경고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일본을 이전보다 더 강력한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¹⁸⁾

그런데 그의 기시 수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1년도 되지 않아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1958년 2월 18일 UP통신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과거를 용서하고 잊어버릴 용의가 있다”고 당시로서는 무소불위의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놀라운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¹⁹⁾ 이 기자회견에서 그는 기시 일본 수상이 한국 내에 있었던 일본인의 사적 재산의 환수를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높이 평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그의 긍정적인 입장은 동년 3월에도 계속된다.

나는 기시 수상이 다시 회담을 개시할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안다. 동 수상은 매우 진실하여 그는 우리가 이제까지 교섭하여 온 다른 일본 외교관들보다 낫다.²⁰⁾

18) International New Agency의 Sydney White 기자와의 인터뷰, 1957. 6. 26, 『서한집』 9, 96쪽(신옥희, 「이승만의 역할 인식과 1950년대 후반의 한미관계」, 48쪽에서 재인용).

19) 「일태도 개선을 환영」, 『조선일보』 1958년 2월 18일자.

20) 「내일 초에 한일회담 재개. 이대통령 일 수상 제의를 수락」, 『조선일보』 1958년 3월 28일자.

물론 그의 이러한 긍정적 입장은 북송을 계기로 하여 급격히 변화하였다. 그는 일본정부의 북송정책을 격렬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그의 입장 변화가 기시 개인에 대한 평가를 바꾼 것은 아니었다. 이승만이 직접적으로 보낸 편지는 아니지만, 그의 부인인 프란체스카와 미국 내에서 이승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던 임병직이 올리버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기시가 친한파로 알려지면서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북송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오히려 기시 일본수상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은 기시 수상 하에서 한국측에 유리하게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한일회담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었다.²¹⁾

결국 이승만의 이러한 태도는 북송에 대한 문제에서 일본정부보다는 일본 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을 더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북한을 의식했기 때문에 나온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의 공산당과 사회당은 남한보다는 북한을 지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제대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의 하나는 현대 한국사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북한의 외교 활동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실이다. 한반도 자체가 이데올로기적인 전쟁터였고, 이로 인해 위정자들이 서로에 대해 경쟁 의식을 갖고 유엔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²²⁾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최근 공개된 1970년대 초까지의 미국의 대한정책 문서를 보면 가장 중요한 대한정책 목표 중 하나는 ‘대한민국이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선린 우호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이승만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었으며, 이승만 정부는 북진통

21) 「프란체스카가 올리버에게 보내는 편지」(1959. 2. 17.), 『서한집』 9, 316~317쪽; 「임병직이 올리버에게 보내는 편지」(1959. 4. 20.), 『서한집』 9, 342~343쪽(신욱희, 「이승만의 역할인식과 1950년대 후반의 한미관계」, 51쪽에서 재인용).

22) 단지 한국군의 전투부대를 베트남에 파병하고 있었던 시기에는 한국 문제가 유엔에 이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베트남 파병으로 인해 제3세계 국가들이 남한보다는 북한측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일을 위해서 ‘반공’은 물론이고, ‘멸공’까지 외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전쟁 직후의 상황이라는 특수성 역시 중요하게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전쟁의 재앙에서 남한과 북한 중 누가 먼저 성공적으로 복구를 이룩하느냐의 경쟁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복구과정이 남한에 비하여 더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1950년대를 통한 북한의 성공적인 복구과정 또한 남한정부와 지식인에게 충격을 주었다. 북한은 1954년부터 시작된 ‘경제부흥 3개년계획’, 1957년부터 시작된 ‘1차 5개년계획’ 등으로 중공업 부문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1954년에서 1960년의 기간 중 연평균 20% 내외의 고속성장을 이루었다.²³⁾ 북한의 경제계획과 성장률은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 발표된 경제개발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부가 1963년까지 고수한 성장률 목표 7.1%는 북한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의식한 결과였다.²⁴⁾

미국 역시 1950년대 중후반 북한의 상황 변화에 대해 의식하고 있었다. 우선 북한 경제상황의 호전으로 인해 남한 경제개발의 필요성이 제고되었다. 1950년대를 통해 북한은 남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전재복구를 이루었다. 미국은 북한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²⁵⁾ ‘이데올로기 전시장’인 한반도에서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 비해 경제성장이 미흡

23) 북한 자체의 발표에 의하면 3개년계획이 끝난 1956년의 자본재 생산은 1953년에 비하여 4배, 소비재 생산은 2.1배로 성장하였다. 1957년에 시작된 5개년계획 기간 중 1957년에서 1960년 사이 공업총생산액은 3.5배로 늘어났으며, 이 기간 공업생산은 연평균 36.6% 성장, 국민소득은 2.1배 증가했다고 한다. 『조선로동당 4차대회 보고 및 1960년계획 실행 총화에 대한 조선중앙통계국의 보도』, 고승호 지음, 이태섭 옮김, 『현대북한경제 입문』, 대동, 1993, 120쪽; 김한길, 『현대조선역사』,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일송정 펴냄), 1983, 347, 373~374쪽. 북한이 발표한 높은 성장률에 대해 의문이 있지만, 1950년대 빠른 속도로 복구를 실행하였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24) 김진현·지동욱, 『한국정기개발계획의 내막』, 『신동아』 1966년 9월호; 木宮正史, 『한국의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1, 49쪽.

25) Department of State, INR-NIE Files, *FRUS 1955-57, vol. 23, part 2*, pp. 287~289; “Evaluation of Alternative Military Programs for Korea”, NSC 5702, January 14, 1957, *FRUS 1955-57, vol. 23, part 2*, pp. 489~498; “Report of Korea: Major Korean policy and program”, October, 1956, Randall Series, Trip Subseries: U.S. Council on Foreign Economic Policy, Office of the Chairman: Records, 1954~61, Box 2, Dwight D. Eisenhower Library(DDel); “Cement Plant to be Build in North Korea by Rumania”, 895A.332/7~3158, RG 59, Decimal File 1955~59, National Archive and Records Administration(NARA).

하였던 남한의 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²⁶⁾ 남한의 지식인들 역시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미국은 1962년 경제기획원의 경제개발계획안에 대해 7.1%의 성장률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였지만, 미국 스스로 새로운 정책결정과정에서 남한정부가 북한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경제적 목적의 하나임을 분명히 하였다.²⁷⁾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북한 사이의 협상 및 재일교포의 북한으로의 귀환은 상대적으로 한국정부의 입지를 좁히는 것이었다. 그가 특공대를 파견하면서까지 재일교포의 복송을 막으려고 했던 것은 북한과의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정부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보다는 북한을 지지하고 있었던 일본 내 공산주의/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거부 반응을 보였을 것이며, 이러한 반응이 기시 수상에 대한 평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사실은 한일관계의 정상화의 효과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승만 정부는 재일교포들을 남쪽이 아닌 북쪽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미국은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통해서 북한 공산주의 정권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다고 파악했다.²⁸⁾ 즉,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과의 경쟁 때문에 복송을 추진하는 일본을 비난했다면, 미국은 일본과 한국 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북한에 비해 한국의 위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26) "Background Paper: Present Korean Political Situation", prepared for President Eisenhower's trip to Korea in June, June 4, 1960, NSF: CO: Korea General, 6/61, Box 127, John F. Kennedy Library(JFKL).

27) Walter P. McConaughy to Members of Korea Task Force, "Meetings of Korea Task Force", May 12, 1961, Gardner Files, Box 9, NARA.

28) "Korean-Japanese Relations", Background paper for use in connection with the meeting of the NSC standing Group, May 18, 1962, NSF: M&M: NSC meetings, 1963 Standing Group Meetings 5/18/62-8/3/62, Box 314 1/62, JFKL. 이 문서는 시기적으로 볼 때 이승만 정부 시대는 아니지만,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한일관계 정상화의 이유를 잘 보여 주는 문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용하였다.

3. 또 다른 일본이 되자

1) 미국의 경제적 파트너로서의 역할 추진과 실패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에 대한 상대적 인식 속에서 이승만이 추구했던 바는 무엇이었을까? 그가 전술한 대일정책뿐만 아니라 북진통일정책, 환율정책 등에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면, 그 이면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까?²⁹⁾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환율정책이다. 이승만은 한국의 통화와 달러 사이에 환율을 고정시키고자 했다. 이는 1952년과 1953년의 마이어 협정 및 백우드 협정을 통해 이승만이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다.³⁰⁾

그러나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한 정책이 실패하면서 이승만이 추구했던 것은 한국 통화화에 대한 과대평가를 추진한 것이었다. 정부가 환율에 깊숙이 개입하였으며, 이를 통한 한국 통화의 과대평가로 인해 정부의 공식 환율과 시장의 실질 환율 사이에는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환율정책은 미국으로부터 좀더 많은 원조를 받는 동시에 수입대체산업화를 위한 것이었다. 즉, 환화의 과대평가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좀더 많은 원조를 받고, 수입대체산업화의 초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계류 수입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승만이 환율의 고정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었던 점은 미국의 정책 하에 이루어진 일본의 환율정책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미국의 양해 아래 1949년부터 1971년까지 1달러 당 360엔으로 환율을 고정했다.³¹⁾ 환율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³²⁾ 이승만은 미국이 일본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29) 이승만은 일본에서 원조물자를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 자본의 투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부흥은 민족번영의 유일한 길』, 『주보』 90호, 1954년 1월 27일자.

30) 1953년 구정에 전격적으로 실시된 통화개혁은 한편으로 유엔대여금을 좀더 받기 위한 정책이면서 동시에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전쟁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환율 계산이 어려울 정도로 통화가치가 떨어진 상황이었다.

31) 차머스 존슨, 『통산성과 일본의 기적』, 김태홍 옮김, 우아당, 1983, 247쪽.

32) 일본의 고정환율은 엔화의 과소평가에 따른 수출주도형, 재정안정형의 목적을 띠고 있었던 데 반하여 이승만이 요구하는 고정환율은 환화의 과대평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일본에 대한 경제원조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고,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대일정책에 대해 '경고'하는 담화문이 수차례 나온 것이 때문이었다. 이승만으로서 태평양전쟁의 전범 국가이면서 한국전쟁 기간 동안 혜택을 본 일본보다는 한국이 미국의 핵심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그는 스스로 '경제계획'이라는 용어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1949년부터 기획처의 주관 하에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이승만 정부는 1955년 기획처를 부흥부로 격상시키면서 몇 차례에 걸쳐 경제부흥계획을 미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생각은 이승만, 그리고 이승만 정부의 관료들과는 달랐다.³³⁾ 우선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관료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에서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는 1961년을 전후하여 케네디 행정부 초기에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를 무상원조에서 유상차관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1950년대 단일국가로는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원조를 받았던 한국에 대한 원조가 너무나 비효율적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되었던 것이다.³⁴⁾ 한국에 대한 원조의 방식을 바꾸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조 관련 기관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팔리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³⁵⁾

이승만의 생각은 또한 트루먼 행정부,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외정책 속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 트루먼 행정부 시기부터 시작된 세계적 차원의 봉쇄전략 하에서 한국은 미국이 핵심적으로 지원해야 할 지역이 아니었다. 봉쇄전략을

33) 정부수립 직후 ECA의 관리가 "이승만의 가장 큰 무기는 미국이 한국을 망하도록 놓아두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한 점은 이승만의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준다. Arthur C. Bunce, chief of the ECA Mission un Korea, *FRUS 1950*, vol. VII, p. 31. 국무성 극동과의 Hemmendinger는 1955년 이승만과의 갈등에 직면하여 "이승만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간에 우리(미국—인용자)가 한국에서 걸어나갈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N. Hemmendinger(FE) to Amembassy Seoul, 795B.00/8-1055, Decimal File, NARA.

34) 1961년 제출된 팔리보고서는 장면 정부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견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주로 이용되지만, 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원조의 효율적 이용 문제이다. 박태균, 『우방과 제국』, 제4장 참조.

35) "Report by Hugh D. Farley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to the President's Deputy Secpual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Rostow)", March 6, 1961, President's Office Files: CO, Korea, Security 1961~1963, JFKL.

입안한 케넌은 군사적·경제적으로 미국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다섯 개의 주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원조를 통해 한정된 미국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당연히 다섯 개 지역에 포함될 수 없었으며, 오히려 한국에 대한 원조의 중요성은 점차 낮아졌다.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진 이유 중 하나도 미 행정부 내 일부에서 한반도를 포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트루먼의 생각이 케넌과 동일한 것은 아니었고,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미군을 과견함으로써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보여 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군의 참전이 대외정책상에서 한국을 일본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끊임없이 뜨거운 감자였다. 군대를 과견해서 많은 비용과 인적 손실을 보면서까지 지킨 한국을 그대로 포기할 수도 없었지만, 원조의 효율성이 낮은 한국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80만에 달하는 한국군을 유지하기 위한 거대한 원조를 계속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³⁶⁾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정책과 이승만의 생각 사이에는 더 큰 차이가 있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뉴룩(New Look) 정책 하에서 대외원조를 감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원조를 감축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국이 되었고, 원조 규모의 축소를 위해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감축 외에 환율의 현실화가 필요했다. 한일관계 정상화의 목적도 대한원조의 축소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나 이승만은 환율문제에 관한 한 타협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고, 민주당 정부에 가서야 환율 현실화가 이루어졌다.³⁷⁾

결국 이승만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이 상정하고 있는 일본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미국의 대

36) 정전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에 트루먼 행정부가 한국을 중립화하면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고려했던 것 역시 이러한 미국의 전략과 관련된다. 비록 한반도 중립화안이 미국의 대한정책의 핵심적 내용으로 계속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고민을 잘 보여 준다.

37) 이로 인해 1959년 매카나기 대사가 다울링 대사 후임으로 부임했을 때 환율 문제로 인해 이승만을 낙마시키기 위해 부임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일정책에 대한 비판과 경고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생각은 현실화될 수 없었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결,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승만은 자신의 구상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에서 제2세계로 말을 갈아탈 수는 없었다. 이승만이 한일회담을 담당했던 관료에게 보냈던 아래와 같은 편지는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일인들의 야심을 발해서 미국에 알려주는 것이 미국의 장래 우환을 막는 데도 필요하고 또 우리 국권확장에 더욱 중대한 것이므로 이런 조건이 연속 생길수록 우리가 발표해서 미국인들에게 일인의 교활한 것과 비밀리에 목적하는 것을 발□식히는 것이 우리의 직책으로 알아야 될 것이므로 우리 공관에서 대표단에서나 혹은 한인거류민단에서나 일인의 음모를 세상에 발표할수록 우리 입장이 견고해질 것이니 지금은 회담도 없고 또 다른 발언할 것이 없지만 일본에서 며칠이라도 더 있는 것은 오직 이것을 하자는 목적이니 이 방면으로 전적 노력해야 할 것이다.³⁸⁾

그의 일본에 대한 정책 방향은 일본의 본질을 폭로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고자 한 것이었다. 한국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이승만은 무언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다. 편승(bandwagoning)을 하되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했던 것이다.

2) 안보 측면에서의 역할 찾기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동맹국이 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승만이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안보적 측면에서의 역할이었다. 당시 한국은 아시아 내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하고 큰 규모의 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모의 군이 미국의 지원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고,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8) 「한일회담에 관한 건」(AA0000459), 대통령 기록관 소장 문서. □는 식별불가 문자.

실질적 전투의 경험을 갖고 있는 무장력이었다.

따라서 일본을 대신해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동맹이 되기 어렵다면, 이승만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군사력이었다. 이승만은 미국이 아시아의 안보에 있어서 일본을 재무장하기보다는 한국과 타이완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 동맹 —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사한 — 의 조직을 주도하고 그에 의존할 것을 기대했다.³⁹⁾ 그러나 이러한 그의 구상 역시 쉽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기존의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전쟁 이전에 있었던 이승만의 태평양 동맹 구상은 그의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처음에는 주도권을 잡고 나아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한국과 타이완이 동맹 결성의 노력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게다가 전쟁은 전쟁 전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실상 한국은 ANZUS(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3국의 공동 방위체)가 조직되는 과정에서 소외되었다.⁴⁰⁾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952년부터 54년 사이에 타이완, 필리핀과 함께 NATO 방식의 태평양 동맹 체결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의 구상 하에서 일본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는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미국에 의한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일본의 재무장이 한일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일본 길전(吉田: 요시다) 수상은 10일 그들의 참의원에서 한 일간에 개재한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진 이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언명한 바 있었음에 대하여 이대통령은 11일 '사적 회담으로는 구체적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고 논평하여 다음과 같이 한일관계에 언급하였다. "내가 알

39) 노기영, 「이승만정권의 태평양동맹 추진과지역안보 구상」, 196쪽.

40) 한국 정부는 ANZUS 논의과정에 옵저버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주미 참사관 한표 욱이 외무부 차관 갈홍기에게 1952. 7. 28」, 외교안보연구원 MFG-0002, 1124~1125쪽. (노기영, 같은 글, 199쪽 각주 49에서 재인용).

기엔 길전수상은 공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만큼 나는 그와 만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적 회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 같지는 않다. 길전수상은 목전에 말하기를 일본의 국력이 충분히 강해지면 한국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한국인으로서 그러한 태도를 자연히 원망하지 아니할 수 없다.⁴¹⁾

그의 구상은 일본의 재무장을 막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위에서 일본을 제외한 보다 포괄적인 집단안전보장체제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이승만이 구상하고 있었던 것은 일본의 안보를 한국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 즉,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적 경제동맹국이 일본이라면, 한국은 핵심적 군사동맹국이 되어야 한다는 역할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한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고자 했던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정희 정부 시기처럼 오키나와 대신 제주도를 군사기지로 제공하겠다는 제안까지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본의 무장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⁴²⁾

이러한 관점에서 이승만은 태평양 동맹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려고 했고, 이러한 그의 제안이 미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태평양 안보 동맹에 대한 계획에서 일본과 동등한 정도의 군사원조가 필요하다는 전략으로 방향을 수정하였고,⁴³⁾ 새로운 제안을 구상하였다. 즉, 이승만 대통령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파병 제안이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1954년과 1958년, 그리고 1959년 세 차례에 걸쳐 인도차이나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라오스에 한국군의 파병을 제안했다. 물론 이 제안은 미국에 의해서 고려조차 되지 않았지만, 군사적 측면에서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었다. 또한 이러한 제안의 이면에는 주한미군 및

41) 「행동으로 성의 보이라」, 『조선일보』, 1954년 3월 13일자. 강조는 인용자.

42) 『국무회의』, 4291년(서기 1958년) 1월 14일자, 2월 4일자.

43) 노기영, 「이승만정권의 태평양동맹 추진과지역안보 구상」, 204쪽.

한국군의 감축을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 역시 깔려 있었던 것이다.⁴⁴⁾ 한국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1957년 이후 한국에 대한 원조 규모를 30% 삭감하였고, 이는 당시 한국 사회에 심각한 위기로 다가왔다. 한국군 일부의 해외 파병이 이루어진다면 한국군의 감축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감축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었다.⁴⁵⁾

한국군의 파병 제안은 미국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로써 일본과는 다른 의미에서 또 다른 일본이 되기 위한 이승만의 노력은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4·19 혁명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정부 수반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6. 결론

이상에서 이승만의 대일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 그의 일본에 대한 인식만을 다루지 않았다. 이승만의 한미관계,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쟁 의식 속에서 아시아에서 한국의 역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상정하고 있었는가를 통해 이승만의 대일인식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승만의 대일인식을 민족주의에 근거한 무조건적, 감정적 적대감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미국 중심의 세계 체제 속에서 일종의 실용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정전협정 직후 양육찬 주미대사에게 보내는 훈령에서 잘 드러난다.

44) 박태균, 「1950~60년대 미국의 한국군 감축론과 한국정부의 대응」, 『국제지역연구』 제9권 3호, 2000, 35~36쪽.

45) 이 점은 박정희 정부의 베트남 파병과 관련해서 고려될 수 있다.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의장이 케네디에게 베트남 파병을 먼저 제안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박정희가 파병을 제안했던 시기는 케네디 행정부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감축을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입안되었던 시기였다. 결국 베트남 파병으로 한국군 및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를 막고, 미국으로부터 파병에 대한 보상을 받는 등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베트남 파병이 성공적이었다는 자신감 속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안보 동맹을 구축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이승만 정부가 갖고 있었던 시나리오와 유사성을 갖고 있다. 박정희가 이승만의 전략으로부터 어떤 영감을 얻었는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해외파병 문제의 경우 당시 군부 내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던 정책 중 하나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연속 이야기한 것이 미국에서 차차 그것을 주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중인데 대지(大旨)는 우리가 일인들을 미워서 배척하거나 지난 40년 동안 우리를 압제한 것을 보복하는 생각이 아니고 일본과 합동해서 공산침략에 대비해 합작하자는 뜻을 붙잡아 가기를 원하나 일본이 지금도 동양에서 침략주의를 폐기하는 표정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음으로 동양인민들이 일본이 군력과 경제력으로 큰 나라가 된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지금도 이전 침략국가들과 합작해서 동양의 약소민족들을 일본의 보호 밑에 둔다는 의도가 있게 되면 중국 4억 명이나 한국 3천만 명이나 그 외의 모든 아세아 민족들은 소련과 합해서 일본을 반항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유로 합동해서 침략국가들이 침략주의를 폐기한 줄 알 때까지는 미국과도 성심으로 연고 합작하기 어려울 것이니 동양사람들의 마음에는 공산주의를 대항하기보다 일본의 침략주의가 다시 부활되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는 중이니 미국정부에서는 일본정부를 시켜서 아무 이런 야심이 없는 것을 순전히 표시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본을 경제적·군사적으로 동양에서 제일 큰 나라로 만들기를 정심(停心)해야만 미국이 동양민족의 신념을 얻어 협동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하략)⁴⁶⁾

이승만의 대일인식은 미국의 대일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일본 중심의 정책을 전환하여 냉전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본하고 있었다. 아울러 일본이 북송을 계기로 하여 북한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처음에는 미국 중심의 제1세계에서 한국이 일본이 되어야 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될 수 없다면, 안보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되는 방안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한국의 역할과 미국이 생각하고 있었던 한국의 역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편승' 정책으로부터 벗어나야 했다. 그러나 전쟁 직후의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가 미국에

46) 「주미양대사에 대한 훈령의 건」(AA0000545), 1954년 2월 24일자 대통령 기록관 소장 문서.

대한 편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또 다른 일본이 되는 방안에서 안보 방면에서의 일본이 되고자 했던 것은 이승만이 현실적인 고려 속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을 고려한다면, 이것 역시 실현되기 어려운 방안이었지만.

결국 이러한 역할의 설정 속에서 이승만은 일본, 그리고 한일관계를 상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인식 속에서 일본 자체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적 인식은 쉽게 찾기 힘들다. 때로 일본인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언급이 나오지만, 이는 다른 외국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언급이었다. 오히려 그는 상황에 따라 일본의 정치인에 따라 긍정적인 반응도 나타내고 있으며, 역사적 문제들을 신축성 있게 고려할 가능성까지도 비쳤던 것이다.

본고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자 한 것은 북한과의 경쟁의식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이승만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북한과의 경쟁의식이었다. 이는 미국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쟁의식이 1950년대 후반 북송문제에 가서 일본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나오는 주요한 배경이 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정희의 대일인식 및 대외정책과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치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 일본인들은 칼과 꽃을 동시에 사랑한, 이해하기 힘든 민족이었다. 일본의 전사적 정신은 일본을 식민지로 전락시키지 않고 강력한 근대국가를 이룰 수 있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일본을 나라에 떨어뜨렸다. 윤치호는 이 모순적인 일본이라는 실체에 직면하여 그것을 헤쳐 나가려 노력했지만 좌절하고 만, 식민지사회의 지식인이었다.

주제어: 윤치호, 사회적 다원주의, 전사적 정신, 민족주의, 협력

일본이라는 거울: 이광수가 본 일본·일본인 | 윤대석

투고일자: 2010년 6월 1일 | 심사일자: 2010년 6월 23일

한국 소설에는 인물로서 일본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한국 소설에 일본과 일본인이 있다면, 그것은 과도하게 추상화·정형화된 존재일 뿐이다. 민족이 상상의 공동체라면 소설은 공동체의 상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자의 배제를 통해서만 민족적 공동체가 상상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정형화(고정)됨으로써만 우리를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기도 했다. 이러한 근대 이후의 일본상은 이광수라는 문제적 인물을 통해 잘 드러난다. 이광수에게 일본은 해방(문명)이면서 동시에 억압(지배)이었다. 우선 일본에 유학했던 이광수는 일본의 문명을 근거로 하여 조선의 개조를 시도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광수에게 일본은 우리가 좇아야 할 문명으로서의 거울이었다. 그에게 일본은 근대 자체였으며, 그런 점에서 일본에 대한 어긋난 상을 그린 셈이지만, 그것은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1938년을 경계로 하여 서구적 문명으로서의 거울은 탈서구(일본주의)로서의 거울로 바뀌지만, 일본이 모델인 점은 변함이 없었다.

반면에 이광수에게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억압적 존재이기도 했다. 그가 2·8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거나 임시정부에서 일을 한 것은 이러한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광수는 근대적 문명에 이미 억압과 지배가 내재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한 억압을 특수한 것, 예외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1938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억압으로서의 일본은 이광수에게 있어 식민지배에서 민족적 차별로 전환되지만,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또다시 모델로서의 일본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주제어: 정형화, 해방, 억압, 문명, 거울

반일을 통한 또 다른 일본 되기: 이승만 대통령의 대일인식 | 박태균

투고일자: 2010년 6월 5일 | 심사일자: 2010년 6월 23일

이승만 대통령의 반일의식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강한 반일의식을 표출하였으며, 그의 반일이데올로기는 통치이데올로기의 일환으로도 이용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재임 시 발언을 보면 단지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반일의식을 표출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우선 그의 반일의식은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되었다. 이승만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시기 미국의 적대 국가였고, 오히려 한국은 냉전의 최전선에서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의 냉전정책에 복무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의 반일 의식은 북한에 대한 고려 속에서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959년에 시작된 일본의 북송정책을 전후한 시기 이승만 자신의 발언과 북송정책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반발은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일본의 접촉 및 재일교포들의 북한으로의 귀환은 이데올로기적 전쟁터인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승만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역할 분담을 통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추구했다. 일본이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파트너가 된다면, 한국은 안보, 군사적 측면에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정책 하에서 집단 안보동맹을 추진했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파병을 미국에 제안했다. 이렇게 본다면,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시기 이승만의 반일 의식은 단순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나왔다고 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정치인 및 과거사에 대한 발언 속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실용적인 대일 인식은 이미 식민지 시기부터 계속되었던 그의 반일 인식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주제어: 이승만, 냉전, 실용적 대일 인식, 미국의 대일 정책, 분단 상황

박정희, 혹은 만주국판 하이 모더니즘의 확산 | 한석정

투고일자: 2010년 5월 29일 | 심사일자: 2010년 6월 2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개발체제(1961~1979)의 식민적 연원은 연구의 빈 공간이다. 이 글은 그의 해방 전, 특히 그의 생시에 언급이 금기였던 만주국 시절(만주국 사관학교 졸업과 만주국군 장교 시절)에 초점을 맞추어, 그 경험이 후일 개발체제의 운행을 과다 결정(혹은 예정)했음을, 그리고 그 중요 요소가 독일, 소련 등에서 발원, 만주국을 경유한 하이 모더니즘(총력동원, 건설의 속도전을 강조하는 발전의 확산)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개발체제의 중요 환경인 냉전시대의 남북한 체제경쟁, 특히 한국 사회 동원의 뿌리가 만주국 시기에 있음을 아울러 지적한다.

주제어: 박정희, 만주국, 개발체제, 하이 모더니즘, 냉전

민족-멜로드라마의 악역들: 『토지』의 일본(인) | 김철

투고일자: 2010년 6월 14일 | 심사일자: 2010년 6월 23일

이 논문의 목적은 박경리의 장편 대하소설 『토지』를 멜로드라마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토지』는 강렬한 파토스, 과도한 감정, 도덕적 양극화 같은 멜로드라마의 요소를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 악랄하고 잔인무도한 악당들과 영웅적 초인들의 대결이 『토지』의 기본적인 서사문법이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도덕적 양극화이다. 선(인)/악(인)의 선명하고도 가차 없는 이분법은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이 소설에서 조금도 변치 않는 원칙이다. 이 선악의 선명한 양극화는, 뜻밖에도, 아니 당연히, 양적으로 방대한 이 소설의 내부적 밀도를 매우 느슨하고 무미건조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양극화된 세계